***Session 8 The Most Famous Apostolic Prayer: The Lord’s Prayer* 8강 가장 유명한 사도적 기도: 주님의 기도**

1. the model prayer (Mt. 6:9-13)  
   모델적 기도 (마태복음 6:9-13)
   1. What a gift and privilege it is to learn about prayer from the One who is the greatest teacher and who had the greatest prayer life! Matthew 6:9-13 is one of the most familiar passages in the Bible, yet so few have searched out its deeper treasures. Its over-familiarity has resulted in many being content with a superficial view of its glorious contents. This is a very important passage, since prayer is the primary way God releases His power through His people.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신 분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선물이고 특권이다! 마태복음 6:9-13절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들 중 하나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깊은 보물들을 찾는다. 과도한 익숙함은 영광스런 내용을 많은 경우에 있어 표면적으로만 만족하게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는 주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2. Jesus gave us a model of prayer (Mt. 6:9-13) based on what God is like and on the nature of the kingdom. It covers foundational truths about prayer that are expanded upon throughout Scripture. Jesus told us the truths that we must know and keep central in our quest to grow strong in prayer.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이 어떠한지에 기초한 기도의 모델 (마 6:9-13)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는 기도에 대한 기초적 진리를 다룬다. 예수님은 기도에 강하게 자라가는 탐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중심에 두어야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9“In this manner, therefore,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9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1. Jesus pointed out six requests that we should pray. The first three focus on God’s glory (His name, kingdom, and will). The second three focus on man’s needs (physical, relational, and spiritual).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에서 구해야 할 여섯 가지를 주목시키셨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나라, 그리고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의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 (신체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1.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 Jesus’ teaching on prayer starts with focusing on who God is—our Father in heaven. Foundational to a strong prayer life is a right view of God as our Father. In his book, *The Knowledge of the Holy*, A. W. Tozer declared that a low view of God has been the biggest problem in the Church in every generation. As we pray, we must intentionally take time to recall who He is according to His Word.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두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강한 기도의 삶의 토대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보는 올바른 관점이다. 토저는 그의 책, **거룩의 지식**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였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키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9“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1. In the time of Jesus, the Jewish people saw God as transcendent creator and King. They trembled before His great power. Jesus taught them that God their creator was also their Father. “In heaven” points to the Father’s powerful transcendence. Jesus combined these two truths about the Lord–  
     He is both *powerful* and *personal*. He connected God’s fatherly love with His heavenly power, His transcendence with His tenderness, and His exalted place in glory with His bowing down so low.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창조주와 왕으로써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아버지되심을 가르쳤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아버지의 강력한 초월성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진리, 즉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한** **개인적이신 분**임을 결합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적 사랑과 그분의 하늘적 능력을,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분의 부드러움을, 그리고 영광 안의 높으신 자리와 지극히 낮아지심과 연결하셨다.
  2. As our heavenly Father, He is deeply personal, yet terrifying in His majesty. He is a Father who longs for a relationship of deep partnership with us in which He trains (disciplines), provides for, protects, and directs us with tenderness. We are to draw near to His tender heart with confidence, love, and humility. In relating to His children, He expresses the fullness of ideal fatherhood. Some neglect this revelation and depersonalize God, presenting Him as majestic, but distant and hars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이신 분이지만 그분의 장엄하심으로 떨게 한다.   
     그분은 우리와 깊은 동역적 관계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훈육하심),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확신과 사랑,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분의 온유한 마음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분의 자녀와 관계하실때, 하나님은 이상적 아버지됨의 충만함을 표현하신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계시를 소홀히하고 장엄하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가혹한 분으로써 묘사하며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킨다.
  3. We will understand more about the glory of our Father, as we see glimpses of His transcendence.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잠깐만이라도 보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것이다.
  4. We are awed by seeing such a glorious Father who longs for relationship with weak people like us.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관계하시길 갈망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다.
  5. ***Our***: He is not only *my* Father; He is *our* Father. Our prayer requests are tempered with the reality of who we are to God *as one family.* We are to have an inclusive attitude as we pray for the Father’s blessing on others in the larger family of believers and not for ourselves only.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기도 요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가족**이라는 실체로 완화된다. 우리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더 큰 가족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6. Revelation 4 is one of the great passages on the Father’s beauty and throne. I see four categories, each having three themes. These twelve details have many implications.  
     계시록 4장은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보좌에 관한 위대한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나는 각기 세가지 주제를 가진 네 가지 범주를 본다. 이 열 두개의 세밀한 사항은 많은 암시들을 담고 있다.
     1. The beauty of ***God’s person***: how God looks, feels, and acts (4:3)  
        **하나님의 인성**의 아름다움: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시는지 (4:3)
     2. The beauty of ***God’s people***: the Church enthroned, robed, and crowned (4:4)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움: 교회는 보좌에 앉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 (4:4)
     3. The beauty of ***God’s power***: manifested in the lightning, thunder, and voices (4:5a)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 번개, 천둥, 그리고 음성 등에서 나타내어졌다 (4:5a)
     4. The beauty of ***God’s presence***: His fire on lamps, seraphim, and the sea (4:5b-7; 15:2)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불[등불], 스랍들[생물], 그리고 유리 바다 (4:5b-7; 15:2)

2A throne set in heaven…3He who sat ther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in appearance; and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like an emerald. 4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I saw twenty-four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obes; and they had crowns… 5From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thunderings, and voices. Seven lamps of fire were burning before the throne…6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crystal…around the throne, were four living creatures…8they do not rest day or night, saying: “Holy, holy, holy…” (Rev. 4:2-8)   
2…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 3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 녹보석 같더라 4또 보좌에 둘려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것이 있으니 … 6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8…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계4:2-8)

* 1. Jesus set the context of intimacy with God within His sovereignty and majesty. Some only see Him as a tender Father, without seeing His heavenly glory. Others see His heavenly glory without seeing His nature as a Father with deep love. Some see Him as a Father who is personal and tender, but do not tremble before His transcendence; they portray the Father as a familiar and fun-loving buddy. These views are based on bad, shallow theology and very little personal experience of God.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과 위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배경을 설정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부드러운 아버지로서만 하나님을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아버지로서 깊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만 본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부드러운 아버지로서 보지만,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떨지 않는다; 그들은 친숙하고 재미있는 사랑스런 친구로서 아버지를 그린다. 이 관점은 나쁘고 얄팍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매우 적은 개인적 경험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1. Praying for God’s glory (Mt. 6:9-10): three requests  
   하나님의 영광 (마 6:9-10)을 위한 기도 : 세 가지 요청
   1. ***Petition #1 Praying for God’s name to be hallowed***: This petition is that God’s majestic name be hallowed, or acknowledged as holy (transcendent and pure), and be revealed *to* us and *through* us. God’s name refers to His person, character, and authority.   
       **#1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게 되길 또는 거룩하게 (초월적이고 순결하게) 인정 받으시길,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길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과 권위를 언급한다.

9“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Mt. 6:9)   
9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 1. We ask the Lord to release a greater measure of power to cause more people to acknowledge the truth about Him. We pray that the Father would receive the highest place in our life, heart, and worship and that others would respond to His name in the way in which He is worthy.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더 큰 능력을 풀어 놓으시길 주님께 구한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예배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길 기도한다.
    2. God-centered Christianity prays *hallowed be Your name*, or “Help us to honor Your name.” We pray, “Lord, work in me and others so that we acknowledge Your greatness.”   
       하나님이 중심이된 기독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길**” 또는 “당신의 이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우리는 “주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우리와 다른 이들 안에서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3. We revere God’s name by not asking for things that we know are against His will or that would defame His glorious name.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구하지 않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이름을 훼손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
    4. Many take God’s name in vain, using it in jest or in expressions of contempt and anger.   
       많은 이들이 농담이나 화가 나서 경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
  1. ***Petition #2 Praying for the kingdom to come***: This petition asks for an increase of the kingdom, which is the place where God’s Word is obeyed, His will is done, and His power expressed.   
     The kingdom is manifested when the sick are healed and demons are cast out (Mt. 11:5; 12:28). This is a prayer for God’s saving power to be openly manifested on earth in a greater measure.  
      **#2 간구 나라가 임하길 위한 기도**: 이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 하나님 나라의 증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병자가 나음을 입고 악마가 쫓겨날 때 (마 11:5; 12:28)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더 크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10“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 + 1. The kingdom of God is manifested partially in this age, then in fullness when Jesus returns to earth. The kingdom is “already, but not yet”—it is already here, but not yet fully here (Mt. 3:1-2; 4:17, 23; 6:10, 33; 10:7; 12:28; 13:11; 16:18-19; 19:12; Mk. 4:11, 26; 9:1; Lk. 16:16; 17:20-21; 18:16, 29-30; Acts 14:22; 19:8; 20:25; 28:23, 30-31; Rom. 14:17; 1 Cor. 4:20).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는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듯이, 이미 여기에 임하였지만 아직은 여기에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마 3:1-2; 4:17, 23; 6:10, 33; 10:7; 12:28; 13:11; 16:18-19; 19:12; 막 4:11, 26; 9:1; 눅 16:16; 17:20-21; 18:16, 29-30; 행 14:22; 19:8; 20:25; 28:23, 30-31; 롬 14:17; 고전 4:20).
    2. Seek to know what God is doing in your generation, and then throw yourself fully into it.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도록 추구하라. 그런 다음에 그것에 당신을 완전히 던지라.
    3. It includes being kingdom-minded in our lifestyle and attitudes toward others. We are to work together with other believers, and not have a territorial attitude of being focused only on our own sphere of authority and influence.   
       이것은 우리의 생활방식과 다른 이들을 향한 태도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된 생각 [킹덤 마인드]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권위와 영향권의 영역에 편중된 세력권적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
  1. ***Petition #3 Praying for God’s will to be done***: This request includes our personal obedience in the context of His kingdom purposes. His will consists of His commands and our ministry assignment.   
     **#3 간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 이 요청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 면에서 우리의 개인적 순종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사역 임무로 구성된다.

10“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10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 + 1. Jesus defined loving God as being deeply rooted in a spirit of obedience (Jn. 14:21). There is no such thing as loving God without seeking to obey His Word in our personal lives.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순종의 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셨다 (요 14:21).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없다.

***15“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s…21He who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it is he who loves Me…23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Jn. 14:15-23)*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23…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 14:15-23)**

* + 1. There is no substitute for obedience in our private lives. Some are passionate about ministry to others, focused on evangelism, justice issues, healing the broken (physically, emotionally, relationally, etc.), but are not as diligent about obeying Jesus in their personal lives.  
       우리의 사생활에서 순종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전도, 정의 이슈, 깨어짐의 치유 (육체적, 감정적, 관계적 등등)에 다른 이들에게 사역에 집중하지만 그들은 사생활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는다.

1. praying for our personal needs (Mt. 6:11-13): three requests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위한 기도 (마 6:11-1): 세 가지 요청
   1. The next three requests are for our needs—*physical* (daily bread), *relational* (forgiveness), and *spiritual* (deliverance from evil). Jesus commanded us to bring our personal requests to God in prayer. These prayers express our dependence on God in every area of our life.   
      다음 세 가지 요청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육체적** (일용할 양식), **관계적** (용서), 그리고 **영적** (악으로부터 구출).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 간구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표현한다.
   2. ***Petition #4 Praying for our daily provision***: This request is for our *daily* provision, protection, and direction (spiritual and physical). *Bread* refers here to our daily natural needs.   
      **#4 간구 일용할 공급을 위한 기도**: 이 요청은 **날마다**의 공급, 보호 그리고 영적, 육체적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양식**은 여기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자연적 필요를 말하고 있다.

11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Mt. 6:11)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 6:11)

* + 1. We do not pray to inform God of our needs (Mt. 6:7-8), but to enhance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to express gratitude (Ps. 50:15).  
       우리는 우리의 필요 (마 6:7-8) 에 대해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감사 (시 50:15) 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2. Asking God for our needs does not free us from the responsibility to work (2 Thes. 3:10).   
       He meets our needs in part by giving us the ability and the opportunity to earn a living.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해야 하는 책임 (살후 3:10) 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분의 역할을 하신다.
  1. ***Petition #5 Praying for forgiveness***: This petition concerns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people. The proof that we have been forgiven is that we are compelled to forgive others with gratitude.   
      **#5 간구 용서를 위한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관한 우리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증거이다.

12“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Mt. 6:12)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6:12)

* 1. Jesus did not say, “Forgive us our debts *because* we forgave our debtors.” We compare Scripture with Scripture to see the truth more clearly. Believers are freely justified by faith, so when they ask for forgiveness, it is to restore their fellowship with God (1 Jn. 1:9), not to be saved from hell. Jesus told Peter that he was *completely clean*, so he needed only to have his feet washed (Jn. 13:10).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 받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구절에서 성경구절로 비교하여 좀 더 분명하게 진리를 볼 수 있다. 믿는 자들은 믿음에 의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요일 1:9)이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완전히 깨끗함**으로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요 13:10) 고 말씀 하셨다.

9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 1. ***Petition #6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evil***: The sixth petition has caused much discussion.   
     Since God never tempts anyone with evil (Jas. 1:13), why would we ask God “not to lead us into temptation?” Meaning, we are praying that God leads us in ways to “escape” tempting situations.   
     **#6 간구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 이 여섯번째 간구는 많은 토론을 야기 시켰다. 하나님은 악으로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는데 (약 1:13), 왜 우리는 하나님께 “유혹(시험)에 들지 않길”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혹의 상황에서 “피할” 길들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13“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Mt. 6:13, NIV, RSV)  
13우리를 시험[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

* 1. Many agree that Jesus was using a figure of speech to express the same thing in two different ways—leading away from temptation and being delivered from, or escaping evil. This is clear when we read both parts of the one request—*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The second half of the request defines positively what the first half expresses negatively.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데 즉, 시험[유혹]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악으로부터 구하시길 혹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를 시험[유혹]에 들게 마시며,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를 두 부분을 가진 한 가지 간구라고 읽을 때에 이것은 분명해진다. 이 간구의 두번째 것은 첫번째의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다.
  2. Jesus urged the apostles to pray that they enter *not* *into temptation* (Mt. 26:41; Lk. 22:40).   
     To enter temptation speaks of something far more intense than the general temptations we all face. It is a specific “storm of temptation” attacking us, a time when three components come together—when *demonic activity* is heightened, our *lusts are aroused*, and *circumstances are optimum* for sin.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시험[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촉구하셨다 (마 26:41; 눅 22:40). 유혹에 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특별한 “유혹의 폭풍” 으로써, **악의 활동이 높아지고**, 우리의 **정욕도 오르고**, 그리고 **죄 짓기에 좋은 상황**이 조성되는 이 세가지 요소가 함께 딱 맞아 떨어지는 때이다.

41“Watch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t. 26:41)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31“Satan has asked for you [Peter], that he may sift you as wheat. 32But I have prayed for you, that your faith should not fail; when you have returned to Me…” (Lk. 22:31-32)  
31사탄이 너희[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 (눅 22:31-32)

* 1. There are “opportune” times when demonically-energized temptations hit us like a storm.   
     Praying before a “storm of temptation” hits us expresses humility that depends on God’s strength and acknowledges our weakness. These “pre-temptation prayers” for help are a preemptive strike against Satan’s attack against us. We can reduce the temptation by praying this way.   
     악한 기운을 받은 유혹이 폭풍처럼 우리를 치는 “기회”의 때가 있다. “유혹의 폭풍”이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이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유혹이 오기 전의 기도”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선제공격이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유혹을 줄일 수 있다.

13The devil ended every temptation…he departed from Him until an opportune time. (Lk. 4:13)   
13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눅 4:13)

34“Take heed to yourselves, lest your hearts be weighed down with carousing,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and that Day come on you unexpectedly. 35For it will come as a snare on all those who dwell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36Watch and pray always that you may be counted worthy to escape all these things…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k. 21:34-36)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 처럼; 뉴 킹 제임스 버전]임하리라 36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

* 1. David prayed for deliverance from sinful situations even before they occurred (Ps. 19:12-13).   
     다윗은 죄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기도했다 (시19:12-13).

12Cleanse me from secret [unperceived] faults. 13Keep back your servant from presumptuous sins; let them not have dominion over me. Then I shall be blameless… (Ps. 19:12-13)   
12나를 숨은 [깨닫지 못하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깨끗게 씻어 주소서; 뉴 킹 제임스 버전]   
13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시 19:12-13)